

THE 1st
**CREDIA
PROMS**

조성진 그리고 쇼팽

**COMPLETE CHOPIN CONCERTOS
BY SEONG-JIN CHO**





MARGOT ROBBIE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J12

IT'S ALL ABOUT SECONDS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견고한 세라믹 워치. 스위스 메이드. 보증기간 5년.

2022.8.31 (수) 오후 7시 30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피아노 | 조성진
클라리넷 | 김한
연주 | 크레메라타 발티카

플랑크

프랑스 1899-1963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 184

빠르지만 슬프게
로망스
빠르고 격렬하게

조성진
김한

거쉬인

미국 1898-1937

프렐류드 1번

조성진
김한

쇼팽

폴란드 1810-1849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Op. 21

장엄하게
약간 느리게
아주 빠르고 생기있게

조성진
크레메라타 발티카

인 터 미 션

쇼팽

폴란드 1810-1849

녹턴 Op. 62-2 (빅토르 키시네 편곡)

크레메라타 발티카

쇼팽

폴란드 1810-1849

피아노 협주곡 1번 e단조, Op. 11

빠르고 장엄하게
로망스. 약간 느리게
론도. 매우 빠르게

조성진
크레메라타 발티카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나답게

THE GENESIS G70 SHOOTING BRAKE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T-GDI 2WD 18인치(빌트인휠):복합10.2km/ℓ(도심:9km/ℓ, 고속도로:12.1km/ℓ) | CO₂배출량:166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55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2WD 18인치:복합10.4km/ℓ(도심:9.2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₂배출량:162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50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AWD 18인치(빌트인휠):복합9.6km/ℓ(도심:8.6km/ℓ, 고속도로:11km/ℓ) | CO₂배출량:177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715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AWD 18인치:복합9.7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₂배출량:174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710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2WD 19인치(울시존):복합10.2km/ℓ(도심:9.1km/ℓ, 고속도로:11.9km/ℓ) | CO₂배출량:166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63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AWD 19인치(울시존):복합9.4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₂배출량:181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725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2WD 19인치(울시존/SP):복합10.2km/ℓ(도심:9.1km/ℓ, 고속도로:11.9km/ℓ) | CO₂배출량:166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663kg | 자동8단(4등급) ▶ 2.0T-GDI AWD 19인치(울시존/SP):복합9.4km/ℓ(도심:8.4km/ℓ, 고속도로:10.8km/ℓ) | CO₂배출량:181g/km | 배기량:1,998cc | 공차중량:1,725kg | 자동8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승압,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미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7:30PM, Wednesday, August 31, 2022 at Yonsei University, Amphitheatre

Pianist, Seong-Jin Cho
Clarinetist, Han Kim
Kremerata Baltica

F. Poulenc

France 1899-1963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FP 184

Allegro tristamente
Romanza
Allegro con fuoco

Seong-Jin Cho
Han Kim

G. Gershwin

U.S.A 1898-1937

Prelude No. 1 - Allegro ben ritmato e deciso

Seong-Jin Cho
Han Kim

F. Chopin

Poland 1810-1849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Maestoso
Larghetto
Allegro vivace

Seong-Jin Cho
Kremerata Baltica

I N T E R M I S S I O N

F. Chopin

Poland 1810-1849

Nocturne in E Major, Op. 62-2 (arr. Victor Kissine)

Kremerata Baltica

F. Chopin

Poland 1810-1849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Allegro maestoso
Romance. Larghetto
Rondo. Vivace

Seong-Jin Cho
Kremerata Baltica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DEVIALET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를 만나다



PHANTOM
IMPLOSIVE SOUND

CREDIA

DIONE
SOUND. UNBOUND.



O D E

오드 메종 02-512-4091
오드 메종 부산 051-747-4092

드비알레 플래그십 스토어 0507-1320-4091
드비알레 컬처 라운지 02-6233-7620
드비알레 동탄롯데점 031-8036-3620



프란시스 풀랑크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이른바 '6인조 Les Six' 중 한 명이었던 프란시스 풀랑크는 혁신적인 언어를 피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간결한 음악 어법으로 자신만의 목소리, 혹은 우리가 '프랑스 에스프리'라고 부르는 섬세한 감각, 그리고 가벼움과 진지함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작곡가였다. 1918년 무렵에 생긴 '6인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각자 음악도 달랐지만, 개인적인 우정은 계속되었다. 풀랑크와 오네게르Arthur Honegger는 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1962년에 만들어진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이미 1955년에 세상을 떠난 오네게르에게 헌정되었다. 3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 전면에는 두 사람의 우정이 담겨 있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언뜻 경쾌하지만 숨길 수 없는 내면의 동요가 엿보인다. 분노가 담긴 듯 뒤틀린 1주제가 전체를 지배하는데, 이렇게 풀랑크는 밝은 어조로 절망을 노래했다. 느린 로망스Romanza 2악장은 풀랑크다운 강렬한 선율로 시작하는데, 그 안에 담긴 멜랑콜리는 마치 세상을 떠난 친구를 추모하는 듯하다. 분위기는 점차 밝아지지만, 다시 우울하게 마무리된다. 3악장에서는 마치 어둠을 떨쳐버리려는 듯 밝게 내달린다. 중간 부분에서 음악은 점차 내밀하고 강렬해지지만, 다시 한번 기쁨과 슬픔이 얽힌 빠른 음악을 불러내서 급하고 떠들썩하게 마무리된다.

조지 거쉬인

프렐류드 1번

거쉬인은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지만 10대 시절부터 클럽과 음악 출판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상당한 기교와 뛰어난 즉흥연주 능력을 얻었다.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로 일약 대성공을 거두고 2년 뒤인 1926년에 쓴 '세 개의 프렐류드'는 클래식, 재즈, 래그타임ragtime, 블루스가 하나로 엮인 거쉬인 음악의 독특한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피아

노의 비르투오시티가 돋보이는 1번 B플랫장조는 블루스와 브라질의 느린 춤곡인 바이앙Baião의 리듬 위로 재즈 풍의 음악이 흐르는 작품이다.

프레데리크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Op. 21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은 작곡가의 초기 음악을 정리하는 마침표인 동시에, 피아노 협주곡의 역사가 낭만파로 진입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바흐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과 제자를 거쳐 모차르트와 베토벤으로 이어진 피아노 협주곡은 당시 중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떠올랐다. 과거의 '떠돌이 음악가'에서 '위대한 비르투오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명 연주자들에게 협주곡은 슈퍼스타 가수들의 선례를 따라 청중에게 자신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궁정이나 교회에 의지하지 않고도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된 '길 위의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된 것이다.

1829년 가을에서 1830년 초에 만들어진 피아노 협주곡 f단조(출판 순서에 따라 번호는 2번이지만 실제로는 1번보다 앞선 곡이다)는 열아홉에서 스무 살로 접어든 청년 작곡가 쇼팽이 만든 최초의 대작이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젊은 날의 초상'이기도 하다. 1830년 3월 3일에 쇼팽의 집에서 소규모 연주를 한 뒤, 공식 초연은 3월 17일에 바르샤바 국립 극장Teatr Narodowy에서 80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연주회는 쇼팽의 바르샤바 데뷔 무대이기도 했는데, 쇼팽 자신은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무렵, 쇼팽은 남부러울 것 없는 전도유망한 예술가였다. 음악원을 갓 졸업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안락한 나날을 보냈고, 협주곡을 들은 바르샤바 청중도 찬사를 보냈다. 그는 협주곡에 앞서 모차르트의 '두 손 잡고Là ci darem la mano'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나 '폴란드 선율에 의한 환상곡' 같은 협주곡 형식의 작품을 썼는데, 아마도 협주곡 장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을 것이다.

이 협주곡에서 쇼팽은 밝고 행복한 젊은 음악가와 자신의 참된 개성을 드러낸 위대한 대가의 경계선에서 있다. 고전적인 전통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낭만적인 감정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도 있겠다. 1번에 좀 가린 느낌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표정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형식을 갖춘 작품이다.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1악장이나 마주카 풍의 론도가 매력적인 3악장도 훌륭하지만, 작품의 핵심은 아마도 녹턴 풍의 느린 악장(Larghetto)이다. 쇼팽의 초기작 중에서 그가 훗날 보여주는 비극적인 음영이 강하게 드러난 최초의 예로, 바로 여기서 진정한 낭만파 피아노 협주곡이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초기 낭만파 작곡가들의 피아노 협주곡은 거의 언제나 느린 악장에서 빈곤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작곡가는 친구 티투스Tytus Woyciechowski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악원 동창이던 소프라노 콘스탄차 그와트코프스카Konstancja Gładkowska를 기념해서 느린 악장을 썼다고 했다. 쇼팽은 끝내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짝사랑은 협주곡 f단조로 그 사명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1836년에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는 제자이자 친구였던 또다른 폴란드 여인, 델피나 포토츠키Delfina Potocka에게 헌정되었다.

프레데리크 쇼팽 빅토르 키시네 편곡

녹턴 E장조 Op. 62-2

이탈리아어 '노투르노notturmo'에서 온 녹턴은 18세기까지 대개 저녁 모임에서 부르는 작은 규모의 독창이나 중창곡을 의미했다.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John Field가 181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피아노 독주곡에 '녹턴'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악곡의 본질은 그대로 남았다. 즉 본질적으로 가사가 없는 노래, '무언가無言歌'였다. 사람의 목소리를 사랑하고 도니체티,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를 좋아했던 쇼팽은 성악곡은 많이 쓰지 않았지만 대신 녹턴에서 피아노로 노래를 펼쳐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형식이 복잡해지고 표현이 깊어져도 이런 특징은 그대로였다. 1846년에 만들어진 작품번호

62번의 녹턴 두 곡(B장조와 E장조)은 쇼팽이 쓴 마지막 녹턴으로, 규모는 작지만 극적 구성이 빼어난 걸작이다. 중음역대에서 우아한 선율이 흐른 뒤 중간 부분에서 어둡고 격정적인 음악으로 바뀌는데, 내성부에서는 정교한 카논 형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런 뒤 음악은 다시 체념하는 듯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쇼팽의 피아노 작품은 19세기 이래 다양한 형태로 편곡되었지만, 다른 악기에서는 그 고유한 매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러시아 작곡가 빅토르 키시네Victor Kissine가 현악 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녹턴 E장조는 원곡의 정서를 간직한 드문 예라고 할 만하며, 2018년에 크레메라타 발티카가 초연했다.

프레데리크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e단조, Op. 11

쇼팽은 1830년 봄 협주곡 2번을 연주하고서 곧이어 새로운 협주곡을 시작해서 여름에 완성했다. 그리고 f단조처럼 소규모 반주로 연주한 뒤 10월 11일, 국립극장에서 작곡가 자신의 연주로 공식 초연했다. 봄 연주회보다는 살짝 못해도 이 연주회 역시 성공을 거두었는데, 콘스탄차 그와트코프스카도 출연해서 로시니의 카바티나를 불렀다. 비록 3주 후에 바르샤바를 떠날 쇼팽의 '고별 연주회'이긴 했지만 그 자신도 아마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협주곡 1번은 2번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더 다양한데, 쇼팽은 자신에게 익숙한 18세기 후반-19세기 초 피아노 협주곡 전통에서 몇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골라 엮어냈다. 기본적으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대화를 나누는 모차르트 모델과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골격으로 하면서, 훔멜Johann Nepomuk Hummel이나 필드John Field, 칼크브렌너Friedrich Kalkbrenner, 모셀레스Ignaz Moscheles 등의 기교적인 피아노 협주곡에서 나긋나긋한 선율과 화려한 음향이 만들어내는 효과, 유려한 표현과 장식적이고 독특한 표현을 슬기롭게 가져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상적인 분위기나 기교의 과시

에만 치우친 공허한 다이내믹은 배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피아노 협주곡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오케스트라 파트는 쇼팽 협주곡의 약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사실 그가 모델로 삼았던 작품들에 비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며, 최근에는 쇼팽의 관현악 작법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아마도 이제 '원곡을 보완한' 오케스트라 파트를 듣게 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쇼팽은 이미 1악장을 작곡할 때부터 전작(f단조)보다 낮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아름다운 2악장에 관해서는 '로망스 풍의 평온하고 구슬픈 음악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이 담긴 장소를 바라보는 즐거운 시선 같은 느낌을 주며... 아름다운 봄날의 달밤에 대한 명상' 같다고 표현했다. 평생 이런 언급을 꺼렸던 그로서는 놀랄 만큼 구체적이다. 2악장에서 중단 없이 바로 이어지는(attacca) 3악장은 f단조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론도인데, 여기서의 생기 있고 힘찬 쿠야비아크kujawiak풍의 음형이 인상적이다. 쇼팽은 레셀Franciszek Lesel이나 도브진스키Ignacy Feliks Dobrzyński 같은 폴란드 작곡가들로부터 이렇게 폴란드 춤곡을 활용해서 독특한 민속적 색채를 더하는 법을 배웠다.

이 협주곡을 초연한 '고별' 연주회는 폴란드와 바르샤바를 향한 고별인 동시에 협주곡을 향한 고별이기도 했다. 작곡가는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쓰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으며 [쓰다 만 1악장은 '연주회용 알레그로' Op. 46으로 재탄생했다], 공개 연주회를 거의 하지 않으며 다시는 이 장르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쇼팽은 평생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공개 연주회, 특히 대규모 연주회를 좋아하지 않았고 대중의 환호성과 찬사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도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 전통에서 최초의 걸작인 두 곡만으로도 장르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조성진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겸비한 조성진은 빠르게 국제적인 수준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으며 같은 세대의 연주자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평가 받는다. 이지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감미롭고, 기교가 넘치면서도 색채감이 가득한 그의 연주에는 귀족적인 고고함과 순수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의 타고난 균형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성진은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조성진은 지난 2016년 1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가장 각광받는 연주자인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으며, 정명훈, 구스타보 두다멜, 야닉 네제 세경, 안드리스 넬슨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사이먼 래틀 경, 상투 마티아스 로우발리, 예사 페카 살로넨과 같은 유명 지휘자들과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조성진의 2022/23 시즌 하이라이트로는 야닉 네제 세경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주빈 메타 지휘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안드리스 넬슨스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으며 티에리 에스케쉬의 피아노 협주곡을 세운 미치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과 초연한다. 이 밖에도 사이먼 래틀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정명훈 지휘의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해외 투어에 함께 하며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는 2023년 봄에 독일 투어를 예정하고 있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성진은 세계 곳곳의 명망 높은 공연장들을 누비고 있다. 뉴욕 카네기홀,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허바우, 베를린 필하모니, 빈 콘체르트하우스,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산토리 홀,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 22/23 시즌에는 카네기홀, 보스턴 셸러브리티 시리즈, 월트 디즈니 홀,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홀, 함부르크 라이스할레, 베를린 필하

모니, 빈 무지크페라인 등에서 재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조성진은 이번 시즌 런던 바비컨 센터에서 데뷔한다.

조성진이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녹음한 첫 음반은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의 <4개의 발라드>로 2016년 11월에 발매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에 드뷔시 독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매되었으며 2018년에는 야닉 네제 세경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협주곡 20번 라단조>가 포함된 모차르트 작품집을 녹음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주제로 한 음반 <방랑자>가 발매되었는데 이 앨범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외에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1번,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담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첫 음반을 함께했던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스케르초 전곡을 녹음한 음반이 출시되었다. 그의 모든 음반은 전 세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다. 2009년에는 일본 하마마츠에서 열린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회 최연소로 우승했으며 2011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3위에 입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와 함께 공부하였다. 조성진은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다.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innate musicality and overwhelming talent, Seong-Jin Cho has established himself worldwide as one of the leading pianists of his generation and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current music scene.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u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2015 when he won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and his career has rapidly ascended since. In January 2016,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An artist high in demand, Cho works with the world's most prestigious orchestras including Berliner Philharmoniker, Wiener Philharmoniker, London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de Paris, New York Philharmonic and The Philadelphia Orchestra. Conductors he regularly collaborates with include Myung-Whun Chung, Gustavo Dudamel, Yannick Nézet-Séguin, Andris Nelsons, Gianandrea Noseda, Sir Simon Rattle, Santtu-Matias Rouvali and Esa-Pekka Salonen.

Highlights of Seong-Jin Cho's 2022/23 season include performances of the Brahms piano concerti at Festspielhaus Baden-Baden with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He notably returns to the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with Zubin Mehta, to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with Andris Nelsons and performs the world premiere of Thierry Escaich's new piano concerto with the Czech Philharmonic and Semyon Bychkov. A highly sought-after touring soloist, Cho embarks on several international tours, including those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Sir Simon Rattle to Japan and Korea, with the Dresden Staatskapelle and Myung-Whun Chung in Dresden and in Korea. He also performs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s in the Fields, touring throughout Germany in Spring 2023.

An active recitalist very much in demand, Seong-Jin Cho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cluding the main stage of Carnegie Hall, Concertgebouw Amsterdam, Berliner Philharmonie,

Konzerthaus Vienna, Prinzregententheater München, Suntory Hall Tokyo, Walt Disney Hall Los Angeles, Festival International de piano de la Roque d'Anthéron, and Verbier Festival. During the coming season he is engaged to perform solo recitals at the likes of Carnegie Hall, Boston Celebrity Series, Walt Disney Hall, Alte Oper Frankfurt, Liederhalle Stuttgart, at Laeiszhalle Hamburg, Berliner Philharmonie, Musikverein Wien and he debuts in recital at the Barbican London. Cho also returns, three times this season, to Japan where he first appears in recital performances in Nagoya, Tokyo and Yokosuka in August 2022.

Seong-Jin Cho's most recent recording is of Chopin's Piano Concerto No. 2 and Scherzi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released in August 2021 for Deutsche Grammophon. He had previously recorded his first album with the same orchestra and conductor featuring Chopin's Piano Concerto No. 1 as well as the Four Ballades. His solo album titled *The Wanderer* was released in May 2020 and features Schubert's "Wanderer" Fantasy, Berg's Piano Sonata op. 1 and Liszt's Piano Sonata in B minor. A solo Debussy recital was also released in November 2017, followed by a Mozart album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 Nézet-Séguin in 2018. All albums have been released on the Yellow Label and have garnered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the age of six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ged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From 2012-2015 he studied with Michel Béroff at th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Seong-Jin Cho is now based in Berlin.

클라리네티스트 김 한

만 11세의 나이에 금호영재콘서트 무대를 통해 데뷔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은 데뷔 1년 만에 소프라노 임선혜 독창회에서 호연을 통해 “클라리넷 신동 - 전승훈(동아일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0년 금호영재신년음악회에서의 연주로 “이 영재에겐 숨소리마저 악기 - 김성현(조선일보)”라는 호평을 받는 등 관악주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 받았다.

솔리스트로서 이미 다수의 독주회를 가진 김한은 남서독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오케스트라 협연 뿐만 아니라, 이견음악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디토 페스티벌 등 최정상급 무대에서의 실내악 연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국제관악제에서 아티 쇼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하고 작곡가 류재준의 클라리넷 소나타와 클라리넷 쿼텟, 후미노리 타나다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세계 초연하는 등 클래식 뿐 아니라 현대음악과 재즈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김한은 최연소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화제가 된 2008 일본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에서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축제와 영국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프랑스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 오스트프 리슬란트 음악축제, 일본 이코마 뮤직페스티벌과 동경 아시안 클라리넷 페스티벌 등 여러 해외 무대에서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한은 2009년 만 13세의 나이로 출전한 제2회 베이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인 최고 유망주상을 수상했으며, 바이츠 쿼텟(목관오중주)의 창립 멤버로 2015년 칼 닐센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였다. 2016년 제3회 자크 랑솔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과 청중상, 위촉곡 최고해석상을 동시에 석권한 김한은 2019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제68회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청중상까지 수상함으로써 차세대 대표 클라리넷 연주자로서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금호영재 10주년 기념페스티벌 “Best of the Best 연주자”, “공연예술계 10인의 유망주” (객석), “문화예술계 셋별” (중앙일보), “문화계 앙팡테리블” (주간한국) 등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한은 연주 영상이 유튜브에서 8백만회 이상 조회되고 클래식 음악 연주가로서는 드물게 구독자의 수가 2만 명을 넘는 등 온라인 상에서도 전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예원학교를 거쳐 영국의 명문 이튼칼리지와 길드홀 음악연극 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김한은 이용근, 김현곤, 앤드류 웹스터를 사사했으며, 현재 독일 뤼벡 음대에서 자비네 마이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 김한은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핀란드 방송교향 악단의 제2수석 클라리넷 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2021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활발한 국내 활동을 펼쳤다.



Han Kim, Clarinetist

By winning the Second Prize in 68th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Munich, 25-year-old Korean-born clarinetist Han Kim has been recognised around the worl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clarinetists in his generation. Alongside the Henle-Urtext Prize, his performance of Elliott Carter's Clarinet Concerto with Münchener Rundfunkorchester in the final round has impressed all the jury members and captivated the audience, which led him to be awarded the Audience Prize in addition.

Born in 1996, Han Kim began playing the clarinet at the age of 10, and has already been recognised around the world as the most promising clarinet prodigy for his wondrous and mature playing, since his video clips of first recital were shared through Youtube and captivated world-wide audiences over 5million times.

Han has appeared many times as a soloist with a number of orchestra such as SWR Symphonieorchester, Münchener Kammerorchester,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Orchestre de la Normandie, KBS symphony orchestra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ince his debut on year 2009 at the age of 13, playing Mozart clarinet concerto with Euro-Asian orchestra in Seoul and has collaborated chamber music performances with many of world's finest musicians including Arto Noras, Sabine and Wolfgang Meyer, Daniel Müller-Schott, Igor Levit, Shanghai String Quartet, Bennowitz Quartet and recent engagements include the world premiere performances of Jeajoon Ryu's clarinet sonata, clarinet quintet, and Fuminori Tanada's Clarinet concerto.

Since he launched his international career by recital at the 2008 international clarinet festival in Japan at the age of 12, he was among the distinguished artists invited to perform in numerous

music festivals, such as City of London Festival, Heidelberger Frühling Music Festival, Musikalischer Sommer in Ostfriesland, Ikoma Music Festival and Asian Clarinet Festival. He regularly gets invited as a guest principal clarinet player in numerous orchestras including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under the baton of conductors such as Hannu Lintu, Alain Altinoglu, David Zinman, Klaus Mäkelä and Jukka-Pekka Saraste.

Han Kim is the 1st prize winner of the 3rd Jacques Lancelot International Clarinet Competition in 2016 by unanimous decision, as well as receiving the audience prize and the prize for the commissioned work. He also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Jury's special prize of the 2nd Beiji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2009. He is the youngest member of Kumho Asiana Soloists and a founding member of Veits quintet, the 2nd Prizewinner of the 1st Carl Nielsen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He graduated Eton College in U.K and 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on a scholarship with Andrew Webster. Currently he studies with Sabine Meyer at Musikhochschule Lübeck and is 2nd Solo Clarinetist of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크레메라타 발티카

1997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에 의해 창단되었으며, 그레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내악단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앙상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돈 크레머는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괴롭히는 '오케스트라 매너리즘(orchestritis)'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젊고 열정적인 음악가들을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단원으로 선발했다. 클래식 주류 음악을 넘어 아르보 파르트, 기야 칸첼리, 페테리스 바스크스,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 알렉산더 라스카토프와 같은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세계 초연하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예술적인 특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의 실내 교향곡과 피아노 5중주곡을 녹음하기도 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창단 이후로 전세계 600개 도시, 5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1500회 가량의 공연을 해왔다. 이들의 광범위하고 엄선된 레퍼토리는 그들의 수많은 CD 레코딩 앨범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들의 음반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는데, ECM 레이블에서 발매된 미치슬라프 바인베르크의 작품 음반은 2015년에 그레미상을 수상했으며, 안나 비니초카야가 협연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2016년도 예코 클래식상을 수상했다. 버밍엄 시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미르가 그라치니테-틸라가 함께한 바인베르크 교향곡 2번과 21번 음반은 2020년에 그라모폰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기돈 크레머와 함께 국제적으로 음악의 저변을 풍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임페리얼상(Praemium Imperial)을 수여받기도 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단원들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규제로 인해 이전처럼 전세계를 다니며 관객을 만나고 공연을 하지는 못했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국적으로 이루어진 크레메라타 발티카 단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하고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기돈 크레머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새로운 세대와 공유하는 데 함께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트인들의 음악적, 문화적 삶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Kremerata Baltica

Founded in 1997 by renowned violinist Gidon Kremer, the Grammy-Award winning chamber orchestra Kremerata Baltica is considered to be one of Europe's most prominent international ensembles. Maestro Kremer intentionally selected young, enthusiastic musicians to stave off the dreaded "orchestritis" that afflicts many professional orchestral players. Essential to Kremerata Baltica's artistic personality is its creative approach to programming, which often ranges beyond the mainstream and has given rise to world premieres of works by composers such as Arvo Pärt, Giya Kancheli, Pēteris Vasks, Leonid Desyatnikov and Alexander Raskatov. In recent years, the orchestra has placed a special focus on Mieczysław Weinberg's work, recording all of his chamber symphonies as well as the piano quintet (in orchestral setting).

Since its establishment Kremerata Baltica has played in more than 50 countries, performing in 600 cities and giving more than 1500 concerts worldwide.

The orchestra's wide-ranging and carefully chosen repertoire is also showcased in its numerous and much-praised recordings. Its album of works by Mieczysław Weinberg on ECM was nominated for a 2015 Grammy Award, its recording of Shostakovich's piano concertos with Anna Vinnitskaya won the ECHO Klassik 2016. The recording of Weinberg's symphonies No. 2 and No. 21, a joined adventure with the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and Mirga Gražinytė-Tylā, received a Gramophone Award in 2020.

Kremerata Baltica as well as Gidon Kremer have been awarded the Praemium Imperale for their international achievements and their role in enriching the global field of music.

Due to the coronavirus restrictions in 2020 the orchestra wasn't able to meet, rehearse, perform concerts and travel the world as usual. But the members, living in different countries, didn't lose their desire to perform music and bring joy to people. The members of Kremerata Baltica who live in Lithuania started preparing programs and performing concerts there, and those who live in Latvia started performing in Latvia and Estonia.

The Kremerata Baltica also serves as a medium to share Gidon Kremer's rich artistic experience with the new gener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promote and inspire the musical and cultural life of the Baltics.



◇ Group leader

CREDIA

Violin I

Džeraldas Bidva ◇

Stella Zake ◇

Aleksejs Bahirs

Zane Kalnina

Rakele Chijenaite

Marija NemanYTE

Violin II

Alina Vizine ◇

Linas Valickas ◇

Sabine Sergejeva

Konstantins Paturskis

Marija Strapcane

Kristina Morozova

Viola

Jevgenija Frolova ◇

Katrina Anna Pelnena

Marta Racene

Emilija Minkeviciute

Cello

Giedre Dirvanauskaite ◇

Peteris Cirksis ◇

Anna Veselova

Kristers Simanis

Double Bass

Iurii Gavryliuk

Kristaps Petersons

Percussion

Andrii Pushkarov



CREEDIA



THE 1st
**CREA
PROMS**

**COMPLETE CHOPIN CONCERTOS
BY SEONG-JIN CHO**

야외에서 만나는 조성진과 크레메라타 발티카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무대가 오는 8월 31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함께 폴랑크, 거슈윈,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을 한 무대에서 연주한다. 서울 공연 하루 전인 30일에는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실내 공연을 갖는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2016년, 쇼팽의 네 개의 발라드와 피아노 협주곡 1번 앨범을 발매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아난드레아 노세다와 함께한 협연 무대는 해외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후 '레퍼토리가 쇼팽에 국한되지 않도록' 쇼팽 프로그램과는 살짝 거리를 두었다. 이듬해에는 드뷔시 독주 앨범을 발매했고, 곧이어 지금까지도 호연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야닉 네제 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남겼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을 포함해 베르크, 리스트 소나타 녹음반을 내놓았다. 곧이어 지방까지 이어진 많은 횡수의 연주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주했는데, 신기하게도 투어 기간 내에는 확진자가 적고 방역 기준이 높지 않았던 덕에 지방까지 모든 공연 일정을 소화했다. 2021년에는 5년 만에 쇼팽을 다시 찾았다. 네 개의 스케르초와 에튀드, 녹턴, 즉흥곡, 그리고 첫 앨범 때와 마찬가지로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스케르초 전곡 앨범을 발매했다. 이로써 두 개의 쇼팽 협주곡을 모두 녹음하고 오는 8월 31일에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함께 쇼팽 협주곡 1번, 2번을 한자리에서 연주한다.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이하는 크레메라타 발티카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발트해 연안 출신 아티스트들과 만든 오케스트라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자신이 원하는 현악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기돈 크레머는 이 오케스트라를 만든 이후 함께 기념비적인 기획 프로그램과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음악계에서 존재감 강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매력적인 오케스트라와 조성진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018년 독일에서 재초청 공연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4년 만에 한국에서 이들의 무대를 보게 된 것이다.

폴랑크와 거슈윈, 클라리넷과 만난 피아노 음악

이날 무대에는 여름밤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레퍼토

리가 등장한다. 쇼팽 협주곡 연주 전, 조성진은 클라리네티스트 김한과 함께 폴랑크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거슈윈의 프렐류드 1번을 연주한다. 김한은 지난해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서, 현재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제2수석 클라리넷 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는, 관악 주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11세에 금호영재콘서트 무대로 데뷔한 후 2015년 칼 닐센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 입상, 2016년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과 청중상, 위촉곡 최고 해석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ARD 국제음악 콩쿠르 준우승과 청중상을 거머쥐었다. 남다른 앙상블 감각을 갖춘 그는 세계적인 목관 5중주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츠 쿤텟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는 클래식과 재즈를 자유롭게 오가는 특별한 악기다. 특히 거슈윈의 작품 속에서 클라리넷과 피아노와 재즈는 주 재료로 다뤄질 만큼 매우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 공연이 8월의 야외무대에서 열린다는 것,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로맨틱한 협주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조성진'을 만난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폴랑크, 거슈윈, 재치한 스타일의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수 있다.

방역 때문이라도 공연장은 늘 조심스럽고 진중한 공간이었지만, 이번 여름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대학 캠퍼스 야외공연장에서 클래식과 재즈, 클라리넷과 피아노, 음악과 자연이 조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꼭 경험해보자.

쇼팽의 두 협주곡을 한자리에서

조성진에게 쇼팽 협주곡 1번은 각별하다. 2015년 쇼팽 콩쿠르 당시 우승을 안겨주었던 결선곡이다. 콩쿠르에서는 협주곡 1번을 연주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1번이 2번보다 연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이지만 2005년 임동민·임동혁 형제가 공동 3위 수상을 했을 때 임동민은 쇼팽 협주곡 1번을, 임동혁은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1번을 선택하는데 임동혁에게 왜 혼자 2번을 연주했느냐고 물었을 때, "형이 1번을 선택해서 나는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아서"라는 다소 '단순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조성진은 두 작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2번보다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나 음악

적 요소가 많은 곡"이라고 한다. 그를 포함해 많은 콩쿠르 참가자들이 쇼팽 협주곡 1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조성진이 영국의 BBC 프롬스 데뷔 무대에서 2번 협주곡을 연주했을 때 <옵서버>지는 "진정한 품위와 세련미를 갖춘 연주자"라 평했다. 조성진은 국내 무대에서는 통영국제음악당 등에서 쇼팽 협주곡 1번만 연주했고, 지난해 앨범 발매 이후에는 협주곡 무대를 가질 수 없었던 탓에 쇼팽 협주곡 2번은 8월 야외무대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협주곡 2번은 1번보다 더 여성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해야 하는 대목이 많아 더 신경 쓰입니다. 2번을 연주할 땐 작곡 당시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빠져 번민했던 열아홉 살의 쇼팽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협주곡 두 곡을 한 무대에서 연주하면 지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조성진은 "협주곡 두 곡을 연달아 치는 건 몸은 힘들지만 음악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한자리에서 들어보면 조성진이 말한 두 작품의 특징이나 표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연주자가 음악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은 관객에게도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터다.

클래식 공연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온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크레디아는 2010년부터 '파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마에스트로 정명훈, 첼리스트 요요 마와 미샤 마이스키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야외무대를 만들었다. 야외 공연은 쾌적한 날씨와 야외 공간이 만들어주는 자유로운 분위기, 여기에 음악적인 감동을 기대하게 된다.

지금까지 크레디아 파크콘서트는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대부분 열렸으나, 이번에는 무대를 변경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크레디아 프롬스(CREDIA Proms)'라는 새로운 무대로 만나게 된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은 세계 유수의 야외 공연장들에 비견될 만큼 공연 전문 극장으로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노천극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감동과 주목을 받았던 무대를 꼽자면 지난 2012년 9월 1-2일,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출연한 오페라 <라 보엠>이다.

당시 날씨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지만,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는 영상 연출을 완성해낸 신선한 무대와 야외 공연임에도 여느 공간과는 달리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지 않은 상태로도 좋은 울림을 만들어내 이 극장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게 되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진 부채꼴형 극장인 만큼 주변 시야 방해 없이 무대를 향한 집중도도 높고, 계단식 좌석 배치라 감상 환경도 쾌적하다. 당시 무대를 직접 관람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소리 전달에 놀라며,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 극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오랜만에 이곳에서 열리는 본격적인 클래식 레퍼토리 무대에 많은 이들의 기대가 크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해온 조성진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매번 놀란다. 팬데믹 기간 중 변수가 생기는 중요한 무대마다 준비된 연주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며 이제는 그 어떤 타이틀보다도 '조성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꾸준히 무대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네기홀 비르투오소 시리즈, 암스테르담 콘서트허바우 마스터 피아니스트 시리즈,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 시리즈를 비롯해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등 세계 최고의 극장과 축제에 초대받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새삼스럽다. 런던 위그모어 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뮌헨 프린츠레겐텐 극장,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홀, 몬테카를로 레니에 극장과 스톡홀름 콘서트하우스 리사이틀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극장에서의 연주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관객과 만나는 '크레디아 프롬스'는 조성진에게도,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크레디아 프롬스, 8월 30일 세종예술의전당, 31일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글 |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자)
클럽발코니 매거진 2022년 7월호 전재

야외 공연장의 인문학적 의미

지리적 환경과 정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이다. 이곳에서 최초의 문명이 만들어진 이유는 건조한 기후 덕분에 전염병의 전파가 적어서 도시가 만들어지기 수월해서였다. 문제는 건조기후대에서 농사를 하려면 관개수로 공사가 필요하다. 수로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 중앙집권적인 권력자의 지시에 따르는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 초기 건조기후대에서 발생한 문명 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적 구조의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 최초의 문명은 지중해를 건너면서 건조기후대를 탈출하게 된다. 건조기후대를 벗어나자 관개수로를 만드는 대형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졌다. 대신 그리스인 중 다수는 해안지방에 살면서 무역을 했다. 토목공사 같은 단체 노동이 줄어들면서 개인주의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개인의 투표권이 중요한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경제구조에서 농업이 줄고 상업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자유는 증가한다. 상업이 늘어날수록 화폐량이 늘어나고 화폐는 농업 소출물보다 이동과 분배가 쉽다.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 게다가 해외무역을 통해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도 수출주도형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이 만드는 사회적 배경으로 그리스 문화는 진화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완성한 것은 '원형극장'이라는 새로운 건축양식이다.

이전의 문명과는 다르게 발생한 그리스만의 독특한 건축공간 양식은 원형극장이다. 일찍이 문명이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왜 극장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은 강 하구의 광활한 평지에 위치한다. 경사진 원형극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 반면 그리스는 전체적으로 산줄기가 바다로 뻗어서 들어가는 모양새다. 자연스럽게 산과 산 사이에 계곡과 언덕이 많다. 그 계곡과 언덕의 기울어

진 땅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계곡의 낮은 방향으로 모이면서 천연의 무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극장 형식의 공간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약에 이러한 계곡에 나무가 울창했다면 시선이 차단이 되었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집을 짓거나 뿔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나갔을 것이고 마을 근처에 나무가 적은 언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모이기에 편리한 극장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는 마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노천극장과도 비슷하다. 연세대학교의 캠퍼스는 주로 평지로 되어있는데, 뒤에는 산이 위치해 있다. 이 평지 캠퍼스가 끝나고 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자연스럽게 흠바닥으로 된 노천극장이 있다. 지금은 돈을 들여서 돌로 의자를 만들고 그리스 원형극장과 비슷한 노천극장을 만들어놓았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의 형성 과정을 보면 그리스의 원형극장이 만들어진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원형극장: 권력 분배기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처음 나타난 건축양식인 원형극장은 경사지를 이용해서 객석을 만들고 아래쪽에 무대를 배치한 형태다. 아테네에서 원형극장은 선거를 할 때는 투표장으로도 쓰이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은 17,000명 수용이 가능한 곳인데 투표의 기능을 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극장의 규모는 그 도시의 성인 남성이 다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극장의 규모로 그 도시의 인구를 미루어 짐작을 하기도 한다. 영어로 극장을 뜻하는 단어 'Theater'는 지켜보는 장소라는 뜻의 단어인 'Theatron'에서 왔다. 어원만큼 극장이라는 장소는 '보다'라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보는 행위는 권력을 만든다. 바라보는 시선이 모이는 장소에 위치한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생겨나는 이유는 모든 의자가 교단을 향해서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

단에 서 있는 사람은 권력이 생겨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그 대상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겨난다. 내가 그곳을 쳐다보지 않으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행동이 되고, 그는 집단에서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 인간사회가 다른 동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단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단의 규칙을 깨는 독단적인 행동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건축공간은 그런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장치이고 교실에서 교단과 학생 의자의 배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시선이 모이는 위치는 권력자의 공간인데 대체적으로 권력자의 공간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보다 높게 만들어진다. 이때 권력자는 주변을 내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이다. 반대로 올려다보는 사람은 권력이 적은 사람의 시선이다. 내려다보는 시선이 권력자의 시선이 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내려다보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시선이고, 올려다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적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주변 동네를 다 내려다보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는 사람은 주변 동네를 보지 못한다.

원형극장이 특별한 이유는 반원형으로 된 극장의 객석은 무대를 향해서 놓여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대로 모여든다. 무대 위가 권력자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대는 객석보다 높이가 낮다. 따라서 무대는 시선 높이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이 낮은 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시선의 높이로 보면 객석의 관객이 권력자의 공간이고, 시선의 집중 측면에서 보면 무대가 권력자의 공간이 된다. 이로써 관객과 무대 위에 선 사람은 권력의 위계가 동등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 무대 위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문명 신전의 꼭대기와는 달리 그리스 아테네의 원형극장의 무대에는 누구나가

올라갈 수 있었다. 원형극장은 권력을 시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권력 분배기'였다. 그리스 사회는 인간을 신과 비슷한 수준의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창조했고, 같은 가치관으로 신과 비슷한 인간들은 서로 동등하다는 생각으로 원형극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형극장 공간은 민주적인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그리스의 원형극장은 그리스 민주주의를 완성한 건축 장치다.

누구나 앉는 의자를 가진 건축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원형극장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의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었다. 선사시대 수렵채집의 시기에는 수십 명 정도의 무리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세간살이는 최소한이었고 가구는 있을 수가 없었다. 편안히 앉기 위한 의자는 있어 봐야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들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농경사회가 되고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되자 집과 가구가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의자는 '밖에서 땀 흘려 노동하지 않는 자'만 필요한 가구다. 농경사회가 되자 나타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빈부격차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렵채집의 시대에 사냥한 고기는 저장할 수 없었지만 농경사회에서 농업 수확물은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빈부격차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계층이 생겨났다. 새로 생겨난 직업 중에는 수확물의 양을 기록하는 서기가 나왔다. 인류 최초의 화이트컬러 직업일 것이다. 문자를 이용해서 경제력을 정량화해서 기록하는 일이 서기의 주요 업무이다. 그들은 아마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왕 정도만 의자에 앉았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왕이나 왕비만 의자에 앉아있고 신하들과 노예는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권

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은 행차를 할 때에도 가마 의자에 앉아서 이동을 한다. 이처럼 의자는 권력자만 사용하는 상징처럼 되어있다. 그런 의자가 그리스 시대에 와서는 원형극장에 만들어져 있다. 그것도 모든 시민이 다 앉을 수 있게끔. 이는 과거 왕이나 몇몇 종교지도자에게 집중되었던 과거의 권력이 상당 부분 일반 시민에게 분산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짜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많은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길거리에 벤치가 많은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다.

원형극장의 '안티고네', TV 속 '모래시계' 그리고 노천극장의 '조성진 쇼팽 공연'

고대에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완성하였고 그를 통해서 집단의 규모를 키웠다. 언어가 발달하자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가능해졌고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쉬워졌다. 그러자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연극이 되었다. 건축은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극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공간을 만들었다. 이로써 한 집단은 하나의 연극을 보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연극을 본다는 것은 관객들 모두가 같은 감정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집단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킨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 후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이 65%에 달했었고, 주인공 최민수가 죽었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이 슬퍼했다. 같은 감정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기가 쉽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90년대에 '송지나' 작가의 비극 '모래시계'가 있었다면 고대 그리스에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가 있다. 원형극장에서 공연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그리스의 국민드라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감정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아테네가 결속될 수 있었다. 90년대 대한민국 TV 속에 '모래시계'

가 있었다면 고대 그리스시대의 원형극장에는 '안티고네'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 드라마는 집집마다 TV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국민 드라마 4대 비극 연극은 원형극장이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했다. 문학 연구가 '브라이언 보이드'는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친밀감을 유도하고, 사회의 규모를 확장한다"고 말했다. 원형극장은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축물이다. 해질녘에 아크로폴리스 아래 언덕에 만들어진 극장에 앉으면 자신들이 사는 도시가 무대 배경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하나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의 시공간에 도시의 시민들은 하나가 된다. 우리가 저녁 8시에 TV 속 드라마를 보면서 한 마음이 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사회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모두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본다. 공통의 추억이나 감정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사회다. 이런 사회는 더욱 분열되기 쉽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것도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야외극장에서의 공연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조성진의 아름다운 쇼팽 연주를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듣는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

글 | 유현준 (건축가, 대학교수)



조성진

도이치 그라모폰 카탈로그

“활동중인 쇼팽 연주자 중 가히 최고 수준” - 팡파르지

“엄청난 기량으로 눈부시게 빛나며, 뛰어난 민첩성과 손재주는 물론 시처럼 부드러운 감상을 선사한다.” - 더 클래식 리뷰



Chopin: Piano Concerto No. 2 · Scherzi
SEONG-JIN CHO
London Symphony Orchestra · Gianandrea Noseda

쇼팽 : 피아노 협주곡 2번 & 스케르초



Chopin: Piano Concerto No. 1 · Ballades
SEONG-JIN CHO
London Symphony Orchestra · Gianandrea Noseda

쇼팽 : 피아노 협주곡 1번 & 4개의 발라드



마티아스 괴르네 & 조성진
바그너, 피츠너, 슈트라우스 가곡집 (2021)



방랑자
슈베르트, 베르크 & 리스트 (2020)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 소나타 3, 12번 (2018)



드뷔시 피아노 작품집 (2017)



2015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앨범 (2015)



UNIVERSAL MUSIC CLASSICS



universalmusickoreaclassics



universalmusicclassickorea





2018.12.6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길라 콘서트, 예술의전당



2018.1.4 조성진 첫 전국투어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



2018.1.11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후 사인회 현장, 예술의전당



2021.9.7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예술의전당



2019.9.10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2021.9.7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예술의전당

CREDIA SEASON 2022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2

CREDIA CLASSIC CLUB 2022

9.14 최성훈, 10.19 홍진호
11.9 박현수, 12.14 리처드 용재 오닐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9.2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MAESTRO MYUNG-WHUN CHUNG
CHAMBER MUSIC CONCERT

9.15 (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2022 DISNEY IN CONCERT

10.2 (SUN) - 10.3 (MO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타카치 콰르텟 내한공연

TAKÁCS QUARTET CONCERT

10.6 (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니 구 리사이틀 <CONNECTED>

DANNY KOO RECITAL <CONNECTED>

11.19 (SAT) 롯데콘서트홀

소프라노 조수미 가곡 콘서트

SUMI JO'S KOREAN SONG PROJECT

12.23(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YUHKI KURAMOTO WITH FRIENDS

12.24 (SAT) 롯데콘서트홀

사라 장 & 비르투오지

SARAH CHANG & VIRTUOSI

12.27 (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RICHARD YONGJAE O'NEILL <THE GIFT>

12.29 (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 있습니다.
GIDON KREMER & KREMERATA BALTICA







MYUNG-WHUN CHUNG
TAKÁCS QUARTET / RICHARD YONGJAE O'NEILL © Philippe Gontier
© Amanda Tipton



SARAH CHANG

© Disney DISNEY IN CONCERT



 @credia_official
  @crediaofficial
 credia.tv
  @크레디아 •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EDIA

CREEDIA MUSIC & ARTISTS

크레디아

회장 정재욱
매니지먼트 정다희 이사, 김소영 이사

크레디아뮤직앤아티스트

상무이사 김혜성
김인주 이사, 김효진, 정다희, 김혜민, 김자연, 오란, 임지현

클럽발코니

송희경 이사, 김가윤, 한주희, 박배희

디토 디지털 오디세이

김재희 실장, 이효성

디토 오케스트라

김재원 국장, 전주은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유료회원에게 한함)

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